

‘여름철 축사 정전’ 철저히 대비!

출처 : 농촌진흥청

◎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불볕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고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정전 대비·대응 요령을 제시했다.

- #1 2019년 7월,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1시간여 동안 정전이 발생해 무창식 축사에 있던 돼지 100여 마리가 질식사했다.
- #2 2018년 8월, 충청남도 당진의 한 양계농장은 정전으로 송풍시설이 멈추면서 닭 8만 7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.

○ 축사에는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장치와 환기·냉방 시설 등 전기가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많아 여름철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

◎ 축사 전체가 밀폐되어 있는 무창식 축사는 정전으로 환기팬이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철저히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.



가솔린 발전기



디젤 발전기

◎ 자가 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%로 설치하며, 연료 점검과 시험운전으로 정상시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
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한다.

- ◎ 개방식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밖에서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운다.
 -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.
 -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뿌릴 경우, 상대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◎ 여름철 갑작스런 비라거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.
 - 피뢰침을 점검하고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설치해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한다.
- ◎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곽정훈 과장은 “예상치 못한 여름철 축사 정전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를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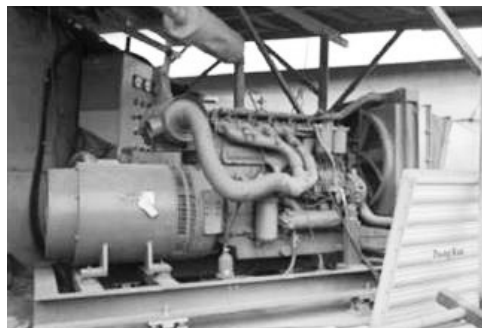
참고자료

여름철 축사 정전 대비

※ 자가발전기 설치 시 필요 전력량 계산

필요 전력량 계산 방법

- ◇ 직경 630mm 환기팬(220V, 3A, 660W)
10대를 동시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.
- $660W \times 10대 = 6,6kW \times 120\% = 7.9kW$
이외에 전등, 모터 등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됨



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발전기의 모습